

과감한 투자로 '친환경 미래' 준비하는 (주)유래코

1969년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 개량산업(모체)으로 처음 문을 연 (주)유래코(UWRAPCO · 대표이사 박건규)는 지금껏 기술개발과 투자 그리고 고객 만족에 대한 열정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플라스틱 필름 및 용기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유래코는 주로 대기업

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고객이 '진정한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하는 포장지 하나하나에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래코는 고객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SAFE)' '보안(SEcurity)'



▲ (주)유래코 박건규 대표이사

‘특별합(SPECIALTY)’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유래코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 투자로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은 물론, 수성플렉소 인쇄기 도입으로 친환경 선두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산시 유래코 본사에서 만난 박건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포장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노고가 있었기에 보다 나은 성능의 포장재, 보다 나은 친환경적 포장재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들 모두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한다면 더 좋은 환경과 미래를 후대에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기업이 되

는 것이 유래코의 미래이자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우유 뚜껑 필름으로 시작 900억 매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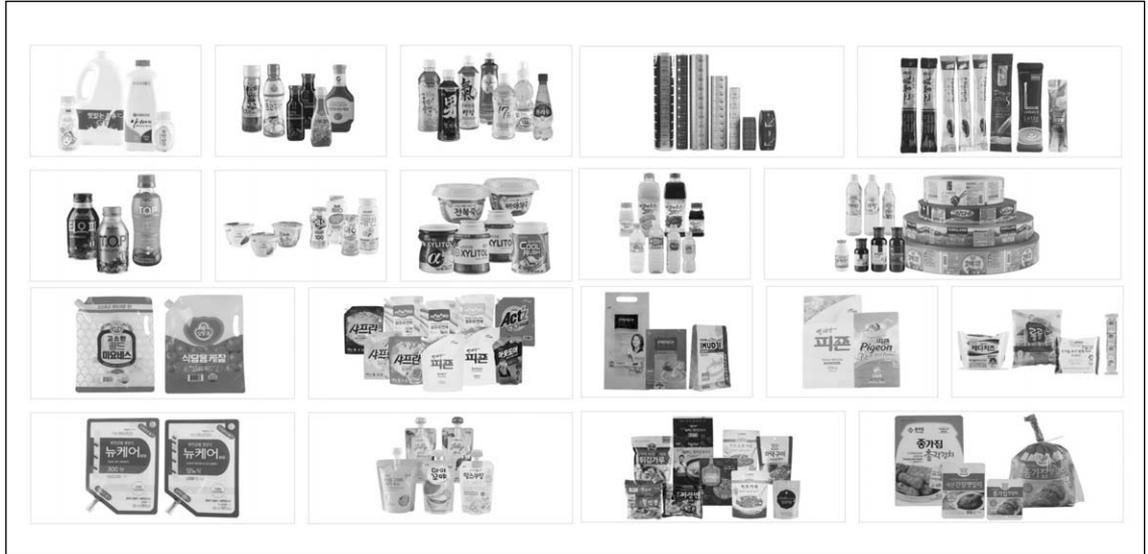
유래코는 故 박병준 회장이 1969년 창립 이래 서울우유 유리병 캡셀과 막걸리 캡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대한민국 포장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장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래코의 시작은 우유 뚜껑에서부터 비롯됐다. 1960년대 우유를 병에다 넣어 소비할 당시 뚜껑의 재료는 비닐이 아닌 종이였다. 마개 역할을 하는 지전(紙錢)으로 뚜껑을 씌웠는데 일본에서는 열수축필름이 최초로 나와 마개에 덧씌



▲ 유래코 회사 전경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 유래코 제품(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쉬링크라벨, 롤스티크포장지, 띠라벨, 파우치, 스파우트파우치 순)

왔다.

유래코 박건규 대표이사는 “수축필름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당시 아버님(故 박병준 회장)이 포장 필름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 전국 유업체를 돌아다니며 팔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필름이었다”면서 “아버님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압축 필름 회사를 찾아다니며 원단을 받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공장 직원만 300명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990년 안산 반월공단으로 옮긴 후에는 그라비아 인쇄기를 들여놓으면서 인쇄품질을 점차 향상시켜 나갔다. 덕분에 업계 전체의 수준도 한 단계 올라섰다.

2000년 상호명을 ‘유래코’로 변경한 후 2016년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18

년에는 제3공장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에 제4공장을 지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래코는 유리병의 충격완화를 위한 엠보 형태 골지를 형성한 쉬링크 라벨부터 띠라벨, 롤포장지, 단일 소재 포장지(단일 PE 포장재 · 단일 PP 포장재) 생산은 물론 직진컷에 도움이 되는 파우치 가공, 수성타입 잉크를 활용할 그라비아 인쇄(녹색인증)까지 플라스틱 연포장 생산 전반에 걸친 영역을 담당하며 지난해 910억원 매출을 달성,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우뚝 섰다. 올해 1000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래코는 5년 뒤 2000억 매출 회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 ‘Easy Cut 단일 PE Pouch’

식품 포장재 관련한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강화

됨에 따라 기존 복합재질과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단일 재질의 포장재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 아직 품질과 생산성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단일 소재 PE 파우치'의 경우 국내에 설비 자동화가 된 곳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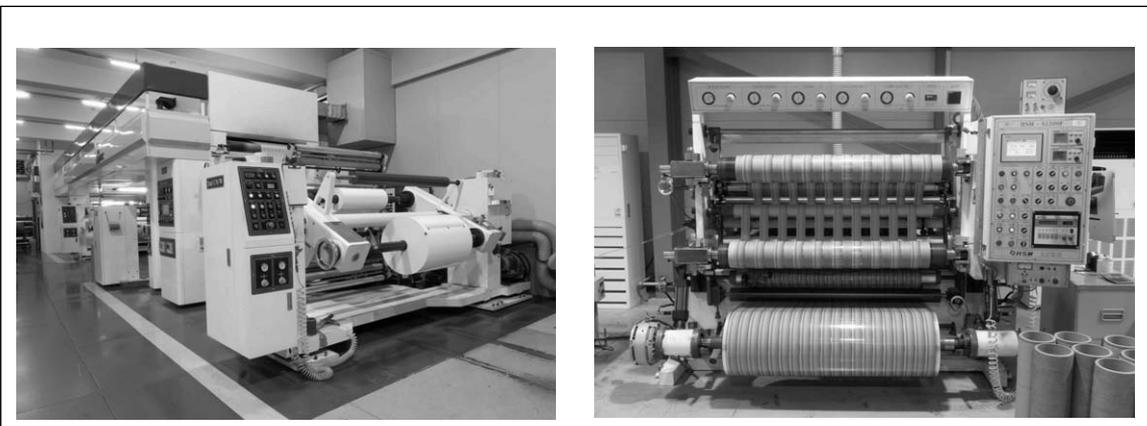
하지만 유래코는 단일 PE Pouch에서 기존 복합재질 Pouch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 및 소비자 편의성을 구현해 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직선 Slit 기술로 Easy Cut 기능을 삽입해 기존과 유사한 개봉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MDOPE를 적용해 내핀홀성을 개선(내평쳐강도: 4.6kgf → 6.6kgf)하고, 기존 단일 PE 재질 대비 인쇄성도 크게 개선(Max 4도 → Max 9도)해 업계에 주목받았다.

유래코에서 품질을 총괄하는 김경석 상무이사는 해당 PE 재질의 모노소재 파우치를 제작하

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개발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상무이사는 "PE 소재 자체 내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우치 형태를 만들 때 외형 찌그러짐이 생겨 이를 보완하고자 낮은 온도에서 봉투 형태로 실팀되는 2급지 실린트층을 개발하였지만 2급지를 저온 실린트로 제작하다 보니, 내면 슬립성이 떨어져 봉투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해결한 후에도 PE재질 자체 늘어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족한 찢김성을 해결하고자 이지컷 슬릿가공처리도 실시했다. 김 상무이사는 "특히 2급지 초저온 실린트 물성의 원단을 받아서 샘플 제작 시 합지 후 일반적인 롤 포장지 온도설정으로 경화를 하였더니 내외표면 롤 포장지 자체가 다 붙어버렸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단이 아니었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유래코 설비. 왼쪽부터 드라이, 슬리터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수성플렉소 인쇄기 도입 '공격적인 투자'

유래코는 올해 12월까지 수성플렉소 인쇄기(독일 윈드밀러 7·8호기)를 도입해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포장산업계에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각 기업들의 생존경쟁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다. 유래코 역시 수성플렉소 인쇄기 도입으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로 친환경 기업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김경석 상무이사는 “풍림, 유상, 유래코 등이 수성 플렉소 인쇄기를 차례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포장지 산업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친환경 활동의 참여도나 마인드는 하루하루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정부나 기업 또한 그들의 니

즈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래코는 친환경 포장산업에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 수성 플렉소 인쇄기 설비는 매우 고가의 장비로 1대당 기계 값만 60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최근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위축과 더불어 국내시장도 어려워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래코 측에 따르면 기존 거래처 식품회사들도 물품 판매량이 25~30% 정도 줄면서 포장재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포장재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래코는 국내 포장지 업계



▲ 화성 공장 내부



▲ 각종 환경 및 식품안전 관련 인증서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녹색기술인증서,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특허증, KMR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서, FSSC 22000, KMR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에서 순수 계열사 없이 고가의 플렉소 인쇄기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열사 제품에 치중된 포장재가 아닌 신규 거래처를 늘리며 여러 기업에 플렉소 인쇄 포장재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김 상무이사는 “지금이 바로 포장산업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후발주자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다. 지금 안주하다보면 향후 5~10년 뒤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장산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美 법인 설립, 해외시장에 ‘야심찬 도전장’

현재 유래코는 국내 친환경 산업에 기여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도 명확하다.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국내 포장산업을 널리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새로운 법인 회사인 ‘커버랙스’를 설립한 유래코는 당초 ‘유래코 아메리칸’이라는 회사명 대신 미국 본토 시장에 걸맞은 브랜드를 새롭게 오픈했다.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 올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포장박람회 (PACK EXPO Las Vegas 2023)에도 부스를 열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전시회는 2,000개 업체와 3만여명이 관람객이 참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포장 및 가공 박람회다.

미국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다. 김 상무이사는 “우선 국내 생산제품을 미국 쪽에 조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비록 계열사가 없는 포장지 회사지만 품질은 기본적으로 갖춰진데다 다양한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그만큼 원부자재 등 구매 경쟁력을 확보해 단가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 현지 직원들도 채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건규 대표이사는 “품질과 기술면에서도 자신 있지만, 무엇보다 맨손으로 일궈낸 만큼 영업 경쟁력에서 우리는 차별화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이하 직원들의 직책 통일화로 능력제 처우



▲ HSM 회사 외부 전경

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는 친환경만이 살 길...재도약 기회

지금 업계 방향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라비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용제를 쓰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업계도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그라비아에서 수성 플렉소 인쇄기로 대체하기 위해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식품 및 제약 등 관련 업계는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바꾸려는 요구가 거세다. 친환경에 둔감할 것 같았던 미국시장도 위해물 첨가 여부 등을 까다롭게 검토한다. 수성 플렉소 인쇄기에 대한 관심도 유럽만큼이나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감지한 유래코는 2020년 녹색(기술, 제

품) 인증 획득부터 2021년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수성잉크를 이용한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제조기술) 획득, 2022년 FSSC 22000 획득까지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분주히 움직였다.

박건규 대표이사는 "분명한 것은 결국 시장이 친환경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업체에서도 수성잉크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기계나 잉크 값을 생각해보면 이번 플렉소 인쇄기 도입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일반 그라비아보다 최소 5배 기계 값이 들고, 잉크도 30~50% 정도 더 비싸지만 우리에게 시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이사는 "향후 위해 물질이 전혀 없고 탄소저감 및 잉크 사용량을 현저히 줄여 환경에 앞장서고 나아가 해외 수출포장 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끊임없는 기능적·환경적 제품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제품개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